

청계천 새물맞이행사 축하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오늘은 참으로 기쁜 날입니다. 마침내 청계천이 시민의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서울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진 것 같습니다. 이명박 시장과 공사 관계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그동안 불편을 감내하며 오늘을 기다려 오신 서울시민 여러분께도 축하를 드립니다.

서울시민 여러분,

청계천 복원은 서울의 미래를 바꾸어 가는 이정표적인 사건입니다. 세계 여러 도시를 둘러봐도 서울만큼 숲과 생태계가 제대로 관리되지 못한 곳도 없는 것 같습니다. 크고 활력은 있지만 답답합니다.

이제 서울은 양적인 성장이 아니라 질적인 발전을 추구해야 합니다. 더 푸르고 더 넓게 활용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품격 있는 도시로 바꾸어 나가야 합니다. 그러자면 서울의 과밀과 집중을 막아야 합니다. 균형 발전정책이 성공해야 합니다.

서울시민 여러분,

정부는 앞으로 균형발전 개념을 보다 확대한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전국 곳곳을 복지와 문화, 여가, 안전 등을 고루 갖춘 공간으로 재편성해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서울이 그 좋은 본보기가 될 것입니다. 지난 6월에는 뚝섬에 서울숲이 개장했고, 숙정문도 내년 4월부터 개방될 것입니다. 언젠가는 청와대 뒤의 북악산도 시민의 품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새 물길을 여는 청계천이 도시에는 활력을, 시민 여러분께는 건강을, 그리고 서울의 미래에 밝은 희망을 전해 주기를 바라며, 여러분 모두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